

목표달리다

원광대 간호학과 정소영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 전국수석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제8회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서 전국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최근에 합격자가 발표된 제8회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은 전체 1,611명의 응시자 중 1,095명이 합격해 64.2%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의과대학 간호학과 정소영(22 사진) 양이 110점 만점에 99점(100점 환산기준 90점)으로 전국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정소영 양은 "원광대 간호학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수님들이 많다"며, "학교생활과 학습, 취업, 자격증 지도 등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된 원광대 간호학과는 20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등 매년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

군산시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당초 계획인원인 200명에서 80명 증원한 280명을 선발해 23일부터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사업 운영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인원을 증원하고, 대학생들이 공공일자리를 참여를 통해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높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했다.

사업 참여자들은 소풍동, 오식도동 일원 산업단지내에서 도로변·공원·공한지 관리, 불법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어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군산시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총 43억원(국비 30억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12월부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일자리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설 연휴기간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은 도로, 교통, 청소, 수도, 하수, 보건, 환경, 식품 등 총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도로 파손,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긴급수리,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등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상황실 근무자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연휴기간 동안 운영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경찰, 경정·경감

경위급 정기인사 단행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017년 상반기 경정·경감·경위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무과장 이만석 ▲생활안전과장 김병겸 ▲112종합상황실장 소준관 ▲수사1과장 안태영 ▲수사2과장 김근필(승) ▲경비교통과장 정진영(승) ▲정보과장 경정 이한재 ▲보안과장 경정 유태기 ▲청문감사관 홍정기(승).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현대중공업 "6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군산지역 각계각층 반발 확산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저버린 채 기업의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오는 6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밝힌 현대중공업에 대해 군산지역 기관 및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은 군산시청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도 3기 가동중단 관련, 경제논리를 내세운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23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을 위한 대응방안'을 밝혔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업윤리가 어려우면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몰아야 하는 것이 최고의 방침이며 세계최고의 경영을 하는 현대중공업의 기업윤리라고

가치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시장은 "앞으로 군산조선소 중단을 위해 군산조선소 문제를 대권 주자들에게 요청하여 이슈화 하고, 김관영 국회의원, 중앙 및 도내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 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수주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울산조선소 수주 물량 17척 중 3척만 군산조선소로 돌려도 200억 중단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논리만 내세우는 현대중공업에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알리고 군산조선소를 존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중단을 위해 전라북도과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 기관·단체, 협력업체 등과 협조하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방문, 국회의원 등을 포

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 왔다.

또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야산정체연구회 등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각계각층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지역경제단체들은 24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24일 범도민 서명부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전달해 전북도민의 의지를 전하고, 25일에는 정몽준 이사장 직책 앞 대표실에서 500여명이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정몽준 이사장 직책 앞과 대표실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플래카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14일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군산조선소 중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나눔 이어져

군산시에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주)금호엔비텍·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이 혼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며 군산시를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금호엔비텍·금호로지스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날 서수면 이장협의회에서도 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특히 서수면 외무장마을 김기형씨 가족들은 지난 15일 작고하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3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또 친환경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주)에이비텍(대표 전세환)은 나은3동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의 향토기업 (주)군정에너지(대표 박준영)도 관내 저소득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소풍동과 미성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백미 10kg 200포대(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성품은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에 따른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방문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실을 방문해 최정호 제2차관과의 특별한 인맥을 이어가며 익산시의 현안 업무를 논의했다.

최정호 제2차관은 망성면 화산리 출생으로 익산성북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정현울 시장과 강경중학교 동기동창이며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현울 시장의 중앙부처 근무 시 각별한 인맥을 자랑했던 막역한 사이다.

이번 두 막역지교의 만남에서는 익산시에 당면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제31번산업단지에서 연무C간 진

입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평택~부여~익산 간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2018년 착공되는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구간도 동시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현울 시장은 공모방식이 아닌 내부선정방식 등으로 진행되는 1,000억원이 지원되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청소년 여가·문화공간 허브역할 '톡톡'

올해도 다양한 청소년사업 진행 예정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훈)이 지역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허브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소속 홍석현(제일중 2)학생과 이세준(중앙고 2)학생이 우수청소년으로 선정돼 여학생가족부장관상을, 청소년문화의집 심혜리 청소년지도사가 우수지도자

로 선정돼 군산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세대통합 나라사랑 오작교 프로그램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청소년문화의집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및 탐색활동 프로그램, 세대통합 나라사랑 오작교 프로그램, 제7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통한 나라사랑 플래시몹 공연, 나눔 국수데이, 사랑나눔 감사데이, 청소년축제 '미미'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에도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십시일반(十匙一飯) 건강밥상 지원사업 진행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열 명의 익산시민이 한술씩 보태면 한명의 독거노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십시일반(十匙一飯) 건강밥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작년 초 처음 시작된 사업은 12월을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올해도 후원자를 모집해 지역 사회 독거노인들의 식사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십시일반 건강밥상 지원사업'은 합일 엔젤요양병원 직

원들의 후원금 오백만원과 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조리할 수 없는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만원 상당의 밑반찬과 국을 전달했다.

또한 외딴곳에 거주하여 장보기가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식재료 구입이 힘든 독거노인 30명에 대해서는 월 3회 회당 7천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밑반찬, 식재료 전달과 함께 영양사의 영양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함으로써 식사문제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 힘써왔다.

1년간 식재료 꾸러미를 전달받은 왕궁면 윤모 어르신(80)은 "월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는데 매주 복지관에서 나와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집이 너무 외져 장볼 곳도 마땅치 않고 무릎도 좋지 않아 장보러 나가는 게 큰 걱정이었는데 덕분에 한 해를 잘 넘겼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건강밥상 지원사업은 연중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문의는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63-837-9105로 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민간위탁업무 교육 실시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제20회 임시회가 끝난 최근 본회의장에서 원활한 민간위탁업무의 이해를 위한 '2017년 익산시의회 의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도를 높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법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 활용하고 해당 사무 및 시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의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소병홍 의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알찬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익산시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속 의원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시간 및 예산절감은 물론 많은 의원들이 민간위탁업무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

익산시 안보단체장 부대초청행사 실시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은 최근 익산시 안보단체장 등 17명을 대상으로 부대초청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익산지역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15개 단체가 참석하였다. 특히 행사는 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보단체를 격려하고, 나아가 천마부대와 안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대원의 안내로 여단에 도착한 이들은 군악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박우

영 여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어서 사진촬영, 부대소개영상 시청, 공수지상훈련 관람, 첨단 태터러 및 재난구조 장비전시 견학, 오찬 등 초청 단체장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익산시지회 한원수 지회장(59)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국가와 지역을 위한 그리고 천마부대와 안보협의를 형성하여 진정한 안보단체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